

AS9000인증 개요 및 획득절차

-한국로스트왁스공업(주)-

| 편집실 |

AS9000인증을 받은 한국로스트왁스

국제 무한 경쟁시대인 지금 현실에서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기업들은 그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국제 표준규격으로 인식되는 ISO인증 획득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실제로 수많은 업체가 ISO인증을 획득하여 매출액의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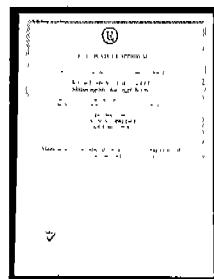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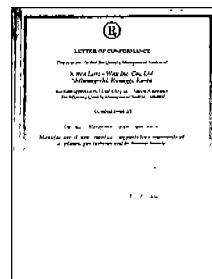
1979년 설립된 한국로스트왁스공업은 정밀주조 일반부품, 항공기 및 IGI부품 생산업체로서 생산에 따른 인증 획득에 대해서는 그 노하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난 2월 항공우주분야의 품질보증 인증인 AS9000을 획득한 한국로스트왁스를 방문하면 먼저 복도벽을 가득 채운 평범한 나무 액자들을 만날 수 있다. 이 모두가 해외 유수의 기업체와 국제 기구에서 따낸 품질보증 인증서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나 한국로스트왁스는 이를 광고하지 않는다. 단지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고 정당하게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각종 인증을 획득할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AS9000인증이란 무엇인가?

AS9000인증이란 ISO9001을 기본으로 한 항공우주 제조분야의 세계 품질보증을 위한 규격으로, 항공우주 산업의 설계, 개발, 제조, 설치 및 서비스 전 과정에 있어서의 품질보증 모델이라 할 수 있다.

ISO란 비정부간 국제표준화기구로서 ISO



LLOYDS REGISTER를 통해 받은 AS9000 인증(좌)과 ISO9002 인증(우)

의 인증은 기업 조직내의 모든 업무흐름을 문서화하여 지식을 공유, 조직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틀을 마련하며 표준 및 관련활동의 세계적 조화를 촉진하고, 국제규격을 개발·발행하며, 회원기관과 기술위원회 업무간 정 보교환 주선과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한다는 대의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제 무역활동에 있어 넘어야만 할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ISO 인증은 품질과 환경규격이 일정수준 이상임을 공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시스템인 ISO9000시리즈와 환경경영 시스템인 ISO14000시리즈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수 획득한 ISO9000은 규격화 정도와 대상 부문에 따라 9001에서부터 9004까지 다시 4종류로 나뉘게 된다.

AS9000인증은 자동차 분야의 QS9000처럼 업종의 특성을 살려 ISO9000에서 파생된 것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EN4600 등과 함께 새로이 제정되고 있으나 정식 인증제도로 정

립된 것은 아니다.

한국로스트워스가 획득한 AS9000 인증은 LLOYD'S REGISTER QA를 통해 받은 것으로 삼성테크원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획득한 것이다. 인증 획득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는 ISO9001의 요구사항에 납기, 가격 면에서 추가적으로 약 35 항목을 준수토록 되어 있어 먼저 ISO9001을 정립한 후 AS9000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ISO 인증 뿐 아니라 모든 인증은 심사 결과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심사 이전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인증서를 발급 받기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는 ISO9001과 동일하며 준비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내외이나 사전준비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심사는 인증신청 → 계약 → 예비방문 → 문서심사 → 현장심사 → 인증의 순으로 진행되며 인증을 획득한 후에도 사후관리와 재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인증이 가지는 의미

한국로스트워스사는 AS9000 인증을 받은 이유가 거래 업체인 GE요구에 의해서였을 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모습이었다. 더구나 국내에는 아직 제대로 소개조차 되지 않은 인증을 2달 여간의 짧은 기간 안에 받은 것에 대한 광고도 자랑도 없이 그저 당연한 결과로 여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연혁이나 조직도를 보면 금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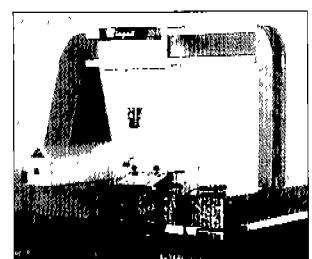
회사 연혁에는 각종 수상경력과 인증 획득 시기가 빼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회사의 조직 편성에 있어서도 일반부품 사업본부(안산공장)와 항공기 부품

사업본부(시화공장)에 각각 품질 보증부를 따로 편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직속으로 품질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어 인증에 대한 준비가 각별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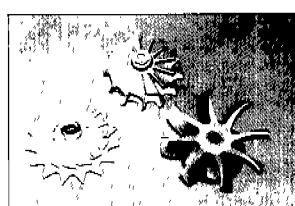
즉, 한국로스트워스사에 있어 인증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일상 업무와도 같은 것일 뿐 특별히 세운 계획 하에 수행하는 전략사업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인증 획득을 위한 사전 준비가 철저한 이 한국로스트워스사도 이번 AS9000 인증을 준비하면서 몇 번의 난관에 봉착했다. 각종 사항을 세세하게 기록한 엄청난 분량의 절차서를 준비하였으나, 심사를 받는 중에 육안 검사 항목에 관한 절차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제재가 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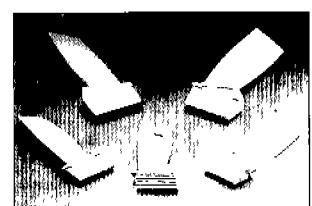
상대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틀림없이 모든 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할 수 없다는 그 한마디에 1주일을 허비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육안검사를 위한 검사자의 교정시력 0.8을 증명한 진단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보사부의 혀가 를 받은 전문 안과 의사의 진단서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3차원 정밀측정기



전투기 에미오닉스 냉각 시스템에 사용되는 터빈 임펠리



Equiax and directional solidification processes.

문제는 시력 검사에 쓰였던 시력검사판이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은 국제 인증을 받은 시력검사판으로 재 검사를 한 후 진단서를 절차서에 첨부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생산 제품 넘버를 기입하는데 쓰이는 도료조차 특정 인증을 받은 회사 제품 중에서도 한국로스트웍스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성분에 변형을 가하지 않는다는 도료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즉, 인증 하나를 받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가지의 규격에 맞춘 절차서를 준비하고,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혹은 인정되는 기관의 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 내야만 했던 것이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수많은 인증서를 획득한 한국로스트웍스의 직원들은 그 것을 까다로운 것이라 생각지 않고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이 만큼 정확하고 세심한 절차를 거쳐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만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인증서를 받은 제품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한국의 인증

그러나 이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증서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획득한 것이 아니다. AS9000인증이야 국내 인증기관이 없어 LLOYDS KOREA로부터 받은 것이라 해도, 국내 인증기관이 있는 ISO인증조차 LLOYD'S사나 ENERGY & ENVIRONMENTAL ACCREDITED QA의 인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국내기관에서 취득한 인증은 해외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ISO 인증은 국제 표준규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인증 국가간의 상호인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AS9000역시 아직 인증제도로 정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한국로스트웍스 사도 LLOYDS로부터의 감사에 통과하였으나 인증서(certificate)를 발행받는것이 아니라 일치증명서(letter of conformance)를 발급 받았을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ISO인증이 국가 간 상호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보다는 국내에서 발행된 인증에 대한 해외 평가도가 낮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로스트웍스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가 있다면 계속해서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지만, 모든 고객에 대한 개개의 비슷한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만큼 하나의 국제규격 인증이 제도화되기를 바라며, 품질보증시스템을 정착 하여 고객을 만족, 감동시키는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